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라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 년 11 월 6 일(금요일) / 장 소 : 줌(비대면)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쓰레기책 :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p> <p>1. 챕터 5에서 각국의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아이디어 내보기</p> <p>김**</p> <p>이 책에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쓰레기를 가져오면 채소를 드려요’라는 아이디어가 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에서는 제대로 소득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녹색교환 프로그램(재활용 쓰레기 4kg당 1kg의 농산물로 교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이 더욱 악화된 현재 상황에서 돈을 벌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돈이나 농산물, 생활용품으로 교환해주거나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주어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도시 빈민의 삶 향상과 동시에 친환경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p> <p>오**</p> <p>독일의 커피 컵 보증금 환불제도인 ‘프라이부르크 컵’에 영감을 받아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불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학이나 여행을 위해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버스표를 받게 되는데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버스표를 받는다면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할 거로 생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표 환불제도를 시행하여 버스표의 가치를 매겨놓고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가까운 터미널에 반납한다면 좋을 것 같다.</p> <p>오**</p> <p>학교에서 학생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져오면 받았던 별점 등을 없애주는 교칙을 만들면 어떨까. 학교의 별점은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거나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저 학생에게 단순한 경고와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환경과 학생, 양쪽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p>							

2. 책 읽은 후, 느낀 점

김**

코로나 19 여파로 배달 음식 소비가 매우 증가했고, 이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도 증가했다. 집 근처 쓰레기장만 가도 제대로 씻지 않고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고, 길거리에는 일회용 커피 컵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수병에 붙어있는 라벨은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린다.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늘어났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생각했다. 정확한 쓰레기 분리 배출, 제로웨이스트 실천(NO 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갔으면 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나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가질 것이다.

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쓰레기의 심각성을 또다시 느낄 수 있었다. 화물차가 경기도의 한 물류창고를 빌리고 그곳에 산업 폐기물을 몰래 내다 버려 '쓰레기 산'이 만들어진 모습의 뉴스였다. 그 양만 5천 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쓰레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해왔지만, 상상 그 이상의 양이었기 때문이다. 폐기물 배출 업체들에 강력처벌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

올해 추석에 양양 낙산사 근처의 바다에 갔다가 태풍 후에 쓸려내려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보았다. 처음엔 저 쓰레기들이 적절한 곳에 버려지지 않았기때문에 저렇게 쌓였구나 라는 생각만을 했다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배출또한 지나쳤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책의 저자는 쓰레기가처리되는 속도보다 배출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배출이 있고 처리가 있으니 우리는 배출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평소 카페의 음료 마시기를 좋아해 테이크아웃을 자주 하는데, 책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 부분을 읽다가 내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음료의 맛을 즐길 생각만 했지 내가 무분별하게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컵이 미칠 영향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환경오염에 일조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일상에서 친환경을 실천해야겠다는 것을 깊게 느꼈다.

3. "지속가능하며 오염물질을 만들지 않는 순환사회는 가능할까요?" 에 대한 본인의 의견

김**

사실 지속가능하며 오염물질을 만들지 않는 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지속가능하며 오염물질을 만들지 않는 순환사회가 가능하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의류 폐기물에 대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옷이나 가방, 인형 등 한번 입고 마음에 안 들어 버리거나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의류 수거함

에 버림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가방, 인형, 가구, 주방용품 등을 기부 받고 기부 물품들을 판매해 숲 조성, 보호아동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이용한다. 두 번째, 페트병, 캔 배출에 대한 방법이다. 캔이나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모아서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에 배출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이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모이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원순환도 가능해 지속가능한 오염물질을 만들지 않는 순환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

자본주의의 현재 사회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면 마냥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본다. 정말 단순하게 평소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이나, 물건 등을 구매하기 전에 당장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충동구매를 막는다면 작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환경을 우선순위에 두는가가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느정도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발전이라는 것이 산업 폐기물들을 내뿜으며 환경을 파괴하는 것만이 아닌, 쓰레기 처리기술의 발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발전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이나 독일, 덴마크 등 세계 곳곳에 있는 친환경 마을들은 친환경 기술을 이용하여 유지되고 있다. 말그대로 기술이 없었던 과거라면 존재할 수 없는 마을이라는 것이다. 이런 마을들이 점점 확대되어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된다면 그게 곧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4.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권한이 국제사회에서도 모호하다. 옆 나라의 쓰레기 더미가 해류를 타고 우리 앞바다로 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

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의 책임이다. 옆 나라의 쓰레기 더미에도 다른 나라들의 쓰레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적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

옆 나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앞바다로 흘러온 쓰레기 더미의 진원지를 알기란 어려운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해결책을 생각해 보면, 해양투기를 한 나라는 이전에 어떤 쓰레기를 어느 정도의 양만큼 언제 투기할 것이라고 상세히 밝힌다면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

책임 자체를 묻는다면 쓰레기더미를 보낸 나라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유사하게 최근의 이슈인 중국발 미세먼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문제라기 보다 정치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다. 실제로 일본 쓰시마 해안에 한국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생기자 부산의 대학생들은 10년 넘게 자발적으로 쓰시마를 방문해 해안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시마 시와 협업하여 해양환경오염 심포지엄을 열며 환경과 정부간 교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자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탓을 한다며 서로 비난하기 보다 인정하고 타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책임은 한 쪽의 몫일수 있어도 해결은 양국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환경에도, 국가간의 감정에도 이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5. 책에 다양한 도시에서의 쓰레기 관련 사업이 나타나 있는데, 각자 이 이외의 도시의 쓰레기 사업 조사해보기

김**

한국환경공단의 포장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자원순환 사업-1993년 시행된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① 판매자가 재활용하기 쉬운 포장재 사용 ②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도록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대한 검사 진행(PVC라고 부르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재질을 이용했는지 검사하는 것) ③ 포장방법 검사를 통해 과태포장, 규제, 포장 정보 공개 등을 실시(포장용기 대비 빈 공간 비율이 10~35% 이내인지, 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가 1~2차 이내인지 등 검사) ④ 포장 컨설팅 실시(포장 관련 규칙, 포장 공간비율 측정방법 제도 안내)

오**

캐나다 서부 도시 에드먼튼에 있는 폐기물 관리센터(EWMC)는 수거된 쓰레기의 90%를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한다. 재활용의 수준도 쓸 만한 물건을 매립하기 전에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이용해서 전력과 비료, 종이 같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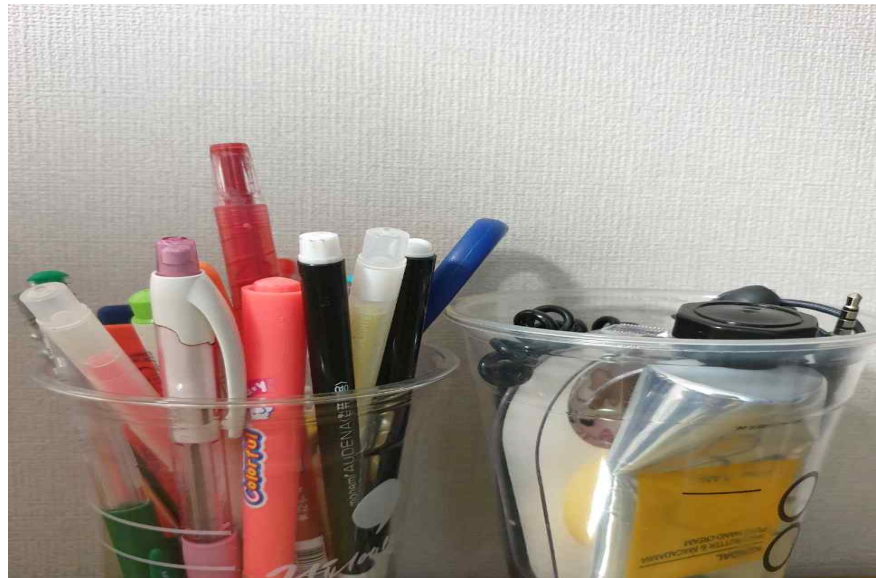
오**

김포시에서는 신문기자, 개인사업자, 시민단체 활동가, 김포시의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김포의 쓰레기 문제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김포시의원들은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나 막상 모든 쓰레기 관련 민원을 행정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며이러한 자발적 시민모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했다고 한다. 책에서도 나와있듯이 일단 우리나라는 쓰레기문제에 대한 '인식'부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 개선사업이 우리나라에 시급한 사업이 아닐까.

6.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진행중인 자신만의 방법은?

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사용하기



오**

이면지 사용하기



오**

페트병(플라스틱)과 포장지(비닐) 분리수거



2020 년 11 월 6 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라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 년 11월 20 일(금요일) / 장 소 : 줌(비대면)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신나는 경제, 경영 30가지 이야기></p> <p>1.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제, 경영 내용은 무엇인가?</p> <p>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우수한 팀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경영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같은 업계에서 서로 경쟁하는 기업끼리도 각 기업의 팀워크에는 우열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야구에서도 한 팀이 항상 우승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팀워크를 강화하고 우수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얼마나 우수한 팀워크를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주의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기업에서는 커다란 경영 과제다. 이상적인 모습은, 팀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을 강화시켜 우수한 자질을 갖춘 후 팀워크를 구축하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 <p>오** 미국의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LEVIS)의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리바이스에서는 소비자와의 팀워크를 생각해 의류회사로써 큰 성공을 거뒀다. 단순히 팀워크를 조직 간에 이뤄져야 할 일로 보지 않고, 그 폭을 넓혀 생각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더불어 나도 팀워크에 대한 기준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p> <p>오** '롱셀러 브랜드의 비밀' 편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를 예시로 들어 제품의 확실한 컨셉(명확한 가치 제공), 시장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롱셀러 브랜드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점과 바꾸어야 할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기업 경영의 팁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는 경영뿐 아니라 사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은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어필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장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나의 부수적인 매력요소를 그때그때 바꾸어서 표현 할 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p>							

2. 책을 읽은 후, 실제 경제 활동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ex) 여행 계획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부모님에게 타낸다/ 부모님에게 빌린다/ 아르바이트 해서 번다' 중에서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 또는 장단점 적어보기

김**

여행 가는 상황에 적용해봤다. '여행계획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에 대한 질문에 답을 만들어보았다. '부모님에게 타낸다, 부모님에게 빌린다,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번다.' 3가지 답 중에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번다.'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빚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님에게 타낸다면, 그냥 받았다는 미안함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것이고, 부모님에게 빌린다면, 갚을 때까지 마음에 부담감이 남거나 결국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아야 한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면, 노동에 따르는 육체적 피로나 책임자 등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 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공부할 시간이 매우 적어지고, 과제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채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빚은 지는 부담감 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부담감이 훨씬 더 낮다고 생각한다.

오**

실제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용돈을 받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돈을 마련하는 편이다. 그래서 내가 여행계획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이용할 것 같다. 이 경우에는 아르바이트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를 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개인적인 공부나, 일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번 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작정 소비하기보단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정할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고 쓸 때는 '얼마의 원가를 투자하여 얼마의 돈을 벌었다.'는 식의 측정이나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평소 어떤 물건이 현재 나에게 필요해도 현재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필요하지 않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덕분에 돈을 절약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약한 돈의 가치가 내가 느꼈던 불편함보다 컸는지는 잘 모르겠다. 따라서 내가 투자한 원가(돈)대비 얼마의 이득을 얻는지 잘 따져보고 행동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3. 나의 평소 소비 스타일은 어떤가? 앞으로 어떻게 방식을 바꿀 것인가?

김**

나의 평소 소비 스타일은 돈을 거의 쓰지 않을 정도로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비 스타일로 생활하면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단점도 있었다. 단점으로는 가게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무조건 가격이 싼 것들만 구매하다 보니, 상품의 질이 떨어져서 오래 사용하지 못한 상황

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계속 가진 채 상품의 품질도 고려하여 구매할 것이다.

오**

소비에 있어서 내가 사길 원하고 필요한 물건을 소유하려는 편이다. 하지만 유행을 신경 쓰기도 한다. 그래서 유행을 생각해 물건을 사면 항상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아 최대한 신중하게 소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오**

물건을 사기 전에 심사숙고 하는 편이다. 만약 갑자기 인기를 끌어 유명해진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현재 내 상황에 필요한 물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구매하지, 단순히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아이패드를 구매 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아이패드로 공부하는 것이 유행 같은 것이 되었다) 정말 오랜 심사숙고 후에 구매한 것이라 아이패드의 편리함을 맛보고 난 뒤에는 오히려 더 일찍 사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지불한 물건 값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손익을 제대로 따져보고 소비해야 할 때는 확실히 소비할 줄도 아는 자세를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4. 우리나라는 1인당 GDP 삼만 불의 초고소득 국가임에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이유,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김**

한국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로서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사회이고, 1인당 GDP 삼만 불의 초고소득 국가인 만큼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느끼고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대부분 9시간 정도 근무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권은 약 7시간 정도 근무한다. 그리고 회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너무 많은 회식 자리는 약 9시가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힘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면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

대학생의 입장에서 요즘은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채용이 현저히 낮다는 기사 내용을 접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신입보다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는데, 새로운 인재를 뽑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다.

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

르다고 생각한다. 자주 방문하는 카페의 메뉴들만 봐도 매년 야금야금 가격이 올라간다. 점주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긴 하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좁은 나라에 일할 사람은 넘치니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라는 생각을 가진 고용주들이 많으며 피 고용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하면서도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 귀한 줄 모른다.'는 것이다. 당연히 취업 경쟁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대로 간다면 어느 정도 저런 인식들은 사라지겠지만 고령화와 같은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다. 우선 다른 부작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열정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의 젊은 사람들의 수고를 등한시하는 인식을 개선시키는 캠페인이나 공익광고가 필요하고 청년들의 좋은 근무환경을 책임져주는 법률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차별은 왜 발생하는가?-편견이 문제인가, 사회구조가 문제인가 김**

차별은 편견이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무에서의 차별을 예로 들면, 회사의 사장은 대부분 남성이다./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여성은 종합직에 채용되는 경우보다 일반직 업무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등이 있다. 업무에서의 편견은 기업의 경영자가 특정 그룹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개인을 실제 능력보다 낮게 평가하여 차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앉아서만 일하려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을 낮게 평가해 채용하지 않거나 승진시키지 않는다. 이런 예들을 바탕으로 편견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성의 취업을 계속 지원해주거나 육아 휴업 제도 등을 많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

책을 통해 '편견설'과 '통계적 차별설'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읽으면서 현재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 안타까웠다. 두 이론을 비교해보면서 과연 차별은 어떤 이유로 발생할지 생각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이익을 위해 능력 있는 사원을 뽑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이익을 생각해 발생하는 통계적 차별설이 좀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오**

편견과 사회구조 둘 다 섞여있겠지만 나는 차별은 우선 편견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히스패닉과 흑인의 동양인 차별이다.(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이들에게 동양인이 놀림을 받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만약 히스패닉이 주를 이루는 남미와 흑인이 주를 이루는 아프리카에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들보다 경제수준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수준도 훨씬 높은, 사회구조상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고작 인종이 황인종이라고 차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인터넷을 잠시만 봐도 알 수 있다. 사회구조가 아닌 특정 인종에게 가진

편견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다.

6. 지금과 같은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계속하다가 에너지가 바닥난다면 어떻게 될까?

김**

한국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IMF 위기시대처럼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에너지를 다른 나라로부터 사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과 같은 풍요로운 소비생활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가 바닥난다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에너지와 관련된 기구들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은 것을 사고, 구입 후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행동으로도 에너지가 바닥나지 않는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적정 난방 온도 유지하기 등 절약을 실천해줬으면 좋겠다.

오**

사람들은 소비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경제 상황 또한 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에너지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아닌데, 돌이켜보면 나도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던 것 같아 책을 읽으며 반성하게 됐다. 에너지가 바닥나지 않기 위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에너지효율등급을 고려해 더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1등급인 제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오**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나치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남기는 행위도 풍요로움이 지나쳐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대체 에너지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석탄이나 석유 등 유한한 자원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나친 소비를 줄여야 한다.

7. 책 읽기 전(2020.11.9.~2020.11.13)과 책 읽은 후(2020.11.22.~2020.11.26) 자신의 소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김**

11/9	Korail	-7,300₩	11/22	지출없음	
11/10	카카오페이	-10,000₩	11/23	"	
11/11	택시비	-4,200₩	11/24	"	
11/12	파자	-12,600₩	11/25	"	
11/13	코레일	-1,600₩	11/26	카드결제	-1,977₩
	영화비	-8,000₩			
	음료수	-2,000₩			
	식비	-19,500₩			
총 지출		-65,200₩			-1,977₩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라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2 월 1일(화요일) / 장 소 : 줌(비대면)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 쟁점 탐구></p> <p>1.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칙이 엄격한 편인데(두발, 교복, 화장, 야자, 조퇴, 결석 등)이렇게 된 이유 생각해보고, 두발 자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p> <p>김**</p> <p>어른들의 고정관념과 대학을 중요시해 반드시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칙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교와 같은 공동체 공간에서는 모두가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발을 제한하여야 한다. 두발이 자유화 되면, 학생은 학생다움을 잃는다. 즉, 학생과 어른의 구분이 사라진다. 두발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과 성인을 구별함으로써 금지선을 제공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아직 자유를 주기에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 학생들이 공부보다 머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부에 방해가 간다. 이렇게 엄격한 교칙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내가 겪었던 사례는 치마는 반드시 무릎선 밑까지 내려와야 하고, 치마 길이가 짧으면 교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실내화는 하얀색 실내화만 가능하고, 스타킹은 살이 비치는 검은 스타킹은 절대 입으면 안 된다. 염색이나 파마도 금지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두발 자유에 대해 찬성한다. 찬성하는 이유는 자유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보장받을 권리와 개성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머리 길이에 제한을 두면 미용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이것은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두발 자유화된 외국학교를 가봐도 정말로 수업에 방해 될 만한 헤어스타일은 없다고 한다.</p> <p>오**</p> <p>요즘은 교칙에 대한 제한이 많이 풀어진 것 같으나, 이전에는 교칙이 많이 엄격했다. 두발 규정의 경우, 일제강점기 때의 관습이 그대로 전해져서 엄격히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중학교 때 두발 규정에 의해 교복을 줄이지 말아야 했으며, 염색이나 파마 금지, 화장 금지 등 다양한 제한을 받았었다. 솔직히 불편한 점을 느끼진 못했다. 하지만</p>						

두발 자유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두발 자유화를 시행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역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시아 국가들(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등)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엄격한 편이고,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나라들은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전자는 근대화와 경제발전이 비교적 느렸던 나라들이고, 후자는 일찍이 과학이 발전하고 근대화를 시작하여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던 나라들이다. 가난했던 전자의 나라들이 경제발전을 하고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느꼈던 교육, 곧 학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 교칙이 엄격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적고, 자원이라고는 사람의 두뇌 밖에 없는 나라이니 더욱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엄격한 교칙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생 때 친구가 머리 염색하는 것을 좋아해서 티가 나지 않을법한 색깔로 염색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결국 선생님에게 들켜 매우 혼났던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 두발규제의 존재 이유가 꾸미는 것에만 열중하여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 학생의 머리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공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염색이나 파마 등의 두발자유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2. 보호는 안전망인가, 올라미인가?

김**

보호는 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은 약자이고 위험에 처하기 쉽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전망을 나타내는 보호의 예를 들면, 청소년의 짬질방 출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 영화에 '청소년 관람 불가' 딱지를 붙이는 것, 청소년 유해 구역을 지정하는 것,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청소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부모나 교사에게 연락하는 것 등이 있다. 청소년은 주체적인 삶을 꾸려 나가기에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오**

청소년에게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을 걸어놓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내가 청소년의 입장이 되어 보아도 불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을 보호한답시고 인권을 무시하지 말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대상으로 보호해야 한다.

오**

어느 정도는 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성인을 성폭행 하였을 때보다 청소년을 성폭행 하였을 때 가해자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의 존재는 '청소년은 신체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인보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더욱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해주어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책의 예시처럼 '청소년은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기 쉬우니 청소년의 노동을 금지하자'라는 등의 대책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니 보호라는 이름으로 엄한 청소년을 옥죄는 것이다. 원인은 청소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어른에게 있는 것인데 말이다.

3. 성숙은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것일까?

김**

반대로, 나이가 어리면 미성숙하므로 어른의 충고와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 청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과연 옳을지 생각해보았다.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도 주장할 권리가 있고, 청소년 나이 정도면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숙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을 말한다.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러워 지는 것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숙은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오**

나이가 성숙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주변에도 그런 또래 친구들이 많다. 뉴스를 보아도 그렇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까지 휘두르며 난동을 피웠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너무나도 미성숙한 어른이 존재한다는 걸 보아서도 성숙은 반드시 나이와 함께 찾아오지 않는 것 같다.

오**

책에서 40대가 자살하면 빈곤, 실업처럼 '사회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10대가 자살하면 충동적이라는 '청소년의 특성'에서 원인을 찾는다. 대목이 나에게 발상의 전환을 시켜주었다. 나이가 어리면 미성숙하다는 프레임도 어찌 보면 어른들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이' 보다는 '경험'과 함께 성숙이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여러 경험을 많이 해봤을 터이니 더 성숙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경험=나이 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4. 의무교육이 학교를 다녀야 할 '학생의 의무'일까, 국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일까?

김**

의무교육은 국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의무를 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나아가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이라는 뜻을 가지므로 학교를 다녀야 할 '학생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

오**

의무 교육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의 의무라고 본다. 또한 의무교육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 및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서 학생의 의무인 것 같다.

오**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그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발전된 사회에 맞추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소양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이니, 중학교정도까지의 수준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개인의 진로에 방해요소가 될 정도의 기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5. 학생인권이 실천되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실제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김**

현재 방안을 예시로 들면, 상점, 벌점 제도이다. 상점, 벌점 제도는 학생 인권보호로 처벌이 금지되어 서울에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잘하면 상점, 못하면 벌점이 아닌, 모범적인 행동은 상점, 처벌 받을 만한 행동을 벌점으로 대체해서 나중에 대학교 때 영향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에 두발 자유 규정도 실제로 집행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것은 복장 단속, 머리카락 단속 등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두발 자유 제도 방안이 실제로 집행되어야 한다.

오**

과도한 징계 및 처벌이 학생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의 소지품을 함부로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감시카메라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

오**

2번 과 비슷하게 학생들이 하기에 열악한 활동에 있어 무조건 '금지'를 시키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 해야 할 것이다. 밝은 대낮보다 어두운 심야에 여성이 성범죄를 당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여성들에게 통금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나는 고등학생 때 교복 자켓에 조그마한 학교 뱃지 하나를 달고 등교하지 않았다고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도대체 공부와 뱃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며 답답해했던 기억이 있다.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허용하는 조금 더 융통성 있는 학교들이 되어야 한다.

6.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철칙이다./ 휴대전화는 학습도구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만질 권리와 공부할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딴짓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학생들은 개인에 따라 지구력도 다르고 그날 컨디션도 다르고 관심 있는 과목도 다르다. 그러므로 모두가 수업 시간 내내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의 행동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수업이라는 것은 교사만 일방적으로 말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을 하며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이 딴짓하는 것을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대전화를 예시로 공부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을 금지하여 공부하게 만드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도 교장 말씀이 길게 이어지는 직원 회의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다. 이 말은 즉, 교장 말씀이 재미없다는 뜻이다.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미없는 수업시간을 견디려면 다른 흥밋거리를 찾아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할 권리를 휴대전화 금지를 통해 빼앗아 가면 안 된다.

오**

학교 수업 시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생각해 보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교칙이 있다면 이는 교칙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 것은 권리라고 볼 수 없는 것 같다. 다만 그러한 교칙이 없는 장소(예: 도서관, 집 등)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학습 도구 삼아 공부할 권리가 있다.

오**

'딴 짓 할 권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공부'인데 그런 학교 안에서 딴 짓 할 '권리'는 상황에 맞지 않다. 휴대폰 사용을 예로 들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되 사용에 대한 세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림음은 철저히 무음으로 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 없는 검색은 금지'라는 것들 말이다. 휴대폰을 수업내용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딴 짓이 될 것이고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좋은 학습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 년 12 월 1 일

참가자대표 : 김**